

“후속세대 양성...문화 고용정책 필요”

정지운 전남대 대학원 호남학과 ‘광주여성영화제 연구’ 논문서 제기 지역 여성담론 장 마련, 콘텐츠 다양화, 온라인 상영관 등 ‘성과’

광주여성영화제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홍보활동과 운영 주체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문화인력 고용 정책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 전남대 대학원 호남학과를 졸업하는 정지운 씨의 석사논문 ‘광주여성영화제 연구’ (지도교수 정명중)에서 제기됐다.

정 씨는 이번 연구를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를 토대로 진행했으며 논문은 광주여성영화제의 특징과 차별성, 향후 지속성을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 씨는 “여론 형성을 위해 보도기사의 활용 외에도 안정적인 영화제 개최와 일상에서 광주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도록 대안영화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 2010년 처음 개최해 지난 해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체로 문화행사가 10회를 넘으면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토대로 한 도약이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사실 국내외를 넘어 여성영화제가 처음 발족된 것은 지난 1971년 독일에서였다. 1960년대 여성들의 성평등과 인권이식이 고조되면서 이루어진 결실로 이후 여성영화제는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서울여성영화제가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 지역의 인권이나 정치적 문제와 결부돼 여성영화제가 진행됐다.

정지운 씨에 따르면 광주여성영화제는 성과와 규모 면에서 국내 여성영화제 중 최고 수준이다. 비교적 후발 주자에 속하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이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나름의 차별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장 손꼽히는 차별성으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꼽는다. 처음에는 광주여성센터가 주관하는 문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다 제3회를 기점으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정 씨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며 내실화를 이루었다”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여성영화제로서는 드문 사단법인 운영체제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도 하나의 차별점이라며 “광주여성영화제는 지역 공공 문화축제로 자리 잡으려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영화제로는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점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영시간과 상영공간 확대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관객수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 씨는 “다양한 관객들의 수요와 성향에 맞추



정지운 씨

어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관객과의 대화를 중점으로 하여 여성영화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고 지역 사회의 현안에 맞추어 사회문제를 공론화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로 유입된 청년층 영향으로 온라인 상영, 메타버스 관객과의 대화 등 콘텐츠를 운영한 점도 눈에 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 씨는 지역여성영화인을 발굴 및 지원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구조를 확보한 점도 영화제 외연을 넓힌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년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술래’.

<광주일보 자료사진>

“더 막강한 ‘진실의 주둥이’가 돌아왔다”

‘정직한 후보’ 라미란 “풍성해진 이야기...배꼽도둑 있을 것”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가 돌아왔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다.

배우 라미란은 24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정직한 후보2’ 제작보고회에서 “새로운 인물과 환경으로 이야기가 훨씬 다채로워진 만큼 더 많은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제가 배꼽도둑이 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배꼽을 훔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내달 28일 개봉하는 ‘정직한 후보 2’는 전(前)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 분)에 이어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다.

전작은 3선 국회의원 주상숙이 선거를 앞두고 최고의 무기였던 거짓말을 잃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라미란은 이 작품을 통해 지난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코믹 연기에 비결은 없다”면서 “재밌는 작품을 하면 재밌는 연기가 나온다”고 겸손해했다.

후속편에서는 백수였던 주상숙이 강원도지사가 된 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작에 이어 연출을 맡은 장유정 감독은 “주상숙이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바뀌면서 훨씬 외닿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더 땅에 붙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편이니까 조금 수월하겠지”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을 강그리 깨주는 현상이었다며 “어떤 것을 1편에서 계속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균형을 잡으려 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된 김무열은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졌을 때 후련하고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도 있지만 배우 입장에서 본다면, 나노 단위로 쪼개서 연기해야 했다”면서 “이래서 미란 누나가 여우주연상을 받았구나 싶었다”고 했다.

라미란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래! 나만 느꼈던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라는 생각에 너무



영화 ‘정직한 후보 2’ 스틸컷

고소했다”며 웃었다.

주상숙의 연하 남편 봉만식 역을 맡은 윤경호는 “다행히 1편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걸 믿고 좀 더 맘껏 까불어봤다”면서 “이번에는 박진주 씨가 제 동생으로 나와서 너무 든든하고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상숙의 시누이 봉만순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박진주는 “재미난 캐릭터를 많이 연기했는데 코미디 영화 자체는 처음이라 엄청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다. ‘정직한 후보 2’에는 박진주 외에도 강원도청 건설교통과 국장 조태주 역의 서현우, 건설사 CEO 강연준 역의 윤두준이 합류했다.

김무열은 “익숙한 반가움에 새로운 얼굴로 신선함을 더해 강력한 웃음으로 돌아왔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다섯가지 인생극장’...양정숙 작가 소설집 ‘객석’ 펴내

순창 출신 양정숙 작가가 소설집 ‘객석’ (예서)을 펴냈다.

소설집에는 ‘객석’, ‘사자와의 대화’, ‘비밀’, ‘눈 먼 자의 꿈’, ‘돌아오는 길’ 등 모두 다섯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각각의 소설들은 인생극장이라는 연극 무대를 배경으로, 작가가 관객의 입장에서 배우인 소설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야기들이다.

소설가 한승원은 “객석에 앉은 관객처럼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되는 모든 것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세세히 보고 들을 것을 옆의 관객에게 속삭이거나 열마중 뒤 그 후일담을 이웃에게 지껄이듯

진술한다”고 표현한다.

표제작 ‘객석’은 각각각색의 병명을 가지고 입원한 환자와 그의 보호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오남매를 둔 청상은 여성이기에 재산을 억울하게 몰수당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다. 또 한 환자는 딸이었기에 교육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저마다의 이야기는 그림처럼 여러 빛깔로 색다른 의미와 감성을 선사한다.

양 작가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 쉽게 치유되어 새 살이 돋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토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수도 있습니다”라고 출간 의미를 밝혔다.

한편 양 작가는 조선대에서 문예창작을,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2016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동화로 등단했으며 동화집 ‘구리구리 똥개구리’, ‘감나무 위 풀단지’와 그림동화 ‘섬진강 뚜꺼버다리’ 등을 펴냈다. 전강문학상, 민들레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MBC 새 드라마 ‘조선변호사’, 우도환·김지연·차학연 캐스팅

MBC TV는 새 드라마 ‘조선변호사’에 우도환, 김지연, 차학연을 캐스팅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변호사’는 조선시대 변호사 강한수가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 게 재판을 통해 복수하는 과정을 담은 사극이다. 배우 우도환이 강한수를 연기한다.

우주소년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지연(보나)이 나라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공주 이연주로 분



우도환



김지연



차학연

하며, 차학연이 조선 최고 명문가의 삼대독자이자 한성부 판관 유자선을 연기한다. 방송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